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7,12ㄹ-14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13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4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8-11

형제 여러분, 8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9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

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짧은 복음>

그때에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3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5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7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17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20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23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24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26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33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34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37 그러

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38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39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40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1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44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혼인예식: 김동건 안토니오 & 우지은 미카엘라**

■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공지사항**

▪ **사순헌금 모음:** 사순 시기 동안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단식, 금육, 절제를 실천하고 절약한 금액이나 물품을 부활대축일 및 부활 시기에 봉헌해 주시면 공동체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03/15/2026)**

- 미사 봉헌금: \$642.00
- 교무금: 강웅일(1-6), 김복남(3-4), 김양후(3), 윤은숙(3)
-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1450.00(3/15까지 최종)



March 22, 2026 사순 제5주일

■ **전례 봉사자**

	사순 제5주일(3/22)	수난성지주일(3/29)	주님부활대축일(4/5)
해설	최낙현 미카엘	장선애 마리아	황현성 요셉
독서	조윤 장선애	이경래 박효연	강웅일 강태순
복사	박한준 라파엘	황시윤 바오로	박한주 미카엘
반주	공승윤 수산나	한혜경 아녜스	공승윤 수산나
제대	안소희 클로틸다	조윤경 로사	-
예물	이지성 정휘인	류지안 남고은	엄유상 강예지

▪ 독서 순서는 담당이신 김은경(파울리나) 자매님께 문의해 주세요.

▪ **성주간 전례 안내**

- 1) 3월 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오전 11시
 -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성지 흔들기). 수난 복음
 - 수난복음 및 독서자 : 추후 공지
 -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동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준비된 바구니에 봉헌해 주시면 되며, 전액 대교구에 보냅니다.
 - 2) 4월 2일(목) 주님 만찬 저녁 미사, 공동 성체조배: 저녁 7시 30분
 - 해설 황현성 요셉 | 독서자 : 추후 공지, 묵주를 지참해 주세요.
 - 3) 4월 3일(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십자가 경배): 저녁 7시 30분
 - 해설 최낙현 미카엘 | 독서자 : 추후 공지
 - 4) 4월 4일(토) 주님 부활 성야 미사: 저녁 7시 30분
 - 해설 정명호 미카엘 | 독서자 : 추후 공지
 - 5)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 오전 11시
 - 성지 보호 및 복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성주간 전례 봉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